

부모를 위한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文 龍 鱗
(교육학과)

I. 서 론: 가정용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가운데 도덕적 문제는 특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을 근래에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재산상속을 놓고 자식이 부모를 혹은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그것이다.

아무리 법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도덕적 규범이 혼란스럽다면 결코 바람직한 삶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 규범의 혼란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규범의 혼란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가정에 돌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가정은 예전의 대가족적 특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규제력과 훈련을 젊은이들에게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종래의 가정에서 하던 도덕적 훈련을 가정 이외에서 맡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학교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사회에서 학교는 도덕 훈련장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생존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준비장소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물론 학교 교육에는 '도덕(국민윤리)'이라는 정규 교과 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 이루어질 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주당 2시간 내외 도덕수업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 문제를 교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순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도덕은 구구단처럼 외우거나, 못 외우는 문제가 아니다. 도덕의 문제는 언제나 전인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문용린, 1986).

도덕은 교실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다. 도덕은 바로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또한,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비중이 큰 삶의 모습은 가정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가정의 도덕교육은 사회의 어느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 발전기금 1994년도 Lemix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도덕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행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줄 아는 안목과 태도, 그리고 의욕과 기술을 제공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종전처럼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습득해 되었던 이런 특성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게 되므로 의도적으로라도 가르쳐야 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것이 강한 도덕성(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라 믿고 있고, 이를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규칙과 덕목을 가르치는 것을 도덕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경향에 따르면 정직·극기·우애·존경 등의 덕목을 가르치고 이를 아동이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고려할 만한 문제를 안고 있다(문용린, 1988).

첫째, 도덕교육은 잔소리를 하는 시간도 주입하는 시간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 기대를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로운 역할 기대를 창출해 내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수동적인 사람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도덕인을 키우려는 것'이다.

둘째, 도덕교육에서는 '결론'(가령, "정직해야 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도덕교육은 어느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따져 보는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Kohlberg(1976)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적 규범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갈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동화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불균형이 평형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발달론적 접근에 의하면 가정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금기와 처벌 그리고 덕목의 주입은 아동의 도덕성을 거의 발달시키지 못한다. 아동은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획득해야 한다.

인지구조 발달의 기본적인 기제는 '가역성의 발달'과 '원리적 사고의 발달'이다. 즉 인간관계에서 가역성의 발달은 타인의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관점채택능력(perspective taking ability)의 발달이고, 원리적 사고의 발달은 하나의 문제해결방식을 구체적 상황에서 일반적 상황으로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다.

그러므로 인지구조의 발달을 위해 부모들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고통을 받게 될 지를 아동으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가 대립되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도덕성을 훈련시킬 만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부모들은 그때 그때 보이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지도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성인의 입장에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이렇게 체계적인 가정의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주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상태를 도덕적 문제로 인식·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배경

1.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인지발달적 접근은 도덕성의 인지적 혹은 판단적 측면을 강조한다. Kohlberg(1967)는 이러한 도덕판단력의 발달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을 도덕 발달의 영역에 도입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도덕성 발달 이론을 구축하였다.

빠아제는 인지발달을 인간이 자신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적응과정으로 보았다. 적응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동화는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구조로 환경에서 오는 자극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조절은 환경의 압력에 따라 자신의 구조를 수정해 나가려는 유기체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빠아제는 이 적응이라는 반응체계를 도식(scheme) 또는 구조(structure)라고 하였다.

빠아제에 따르면, 구조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질적 변화를 보이는데, 인지구조의 질적 차이로써 발달의 단계를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의 발달은 질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통합을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통합과정의 위계적 순서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 단계를 이룬다. 다시 말해 발달은 개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모든 외적 요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통합하는 개체의 자기조절작용(self-regula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발달은 질적으로 상이한 불연속적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콜버그는 이러한 배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도덕발달 단계의 틀을 발달시켰다.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하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imer, 1977).

첫째,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발달은 인지구조의 변화이며 질적인 변화이다. 셋째, 사람은 도덕적 규범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동화한다. 동화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이 발달 상의 문제가 된다. 넷째, 인지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불균형이 평형화되는 과정이다.

콜버그는 가상적인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9개 문화권의 아동과 성인의 추론반응에 기초하여 6단계 도덕추론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단계를 각 개인이 밟아가는 순서로 정의하고 있다. 이 단계의 순차성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는 하나의 사고양식의 획득이 이전 사고 양식의 획득에 의존하면서 이전 사고양식의 재조직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Turiel, 1969).

콜버그가 제시한 3수준 6단계를 ① 무엇이 올바른가, ② 올바른 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각 단계의 사회적 조망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비추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Kohlberg, 1976).

[인습 이전 수준]

1단계: 벌과 복종 지향(punishment and obedience orientation)

① 옳은 것은 처벌이 따르는 규칙의 위반을 회피하는 것이며, 복종 그 자체를 위한 복종과 사람 및 재산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고 권위자의 우월한 힘 때문이다.

③ 이 단계의 사회적 조망을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타인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거나 그것이 행위자의 이해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행위는 타인의 심리적 이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물리적 이해의 측면에서 고려된다. 권위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2단계: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instrumental relativist orientation)

① 옳은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될 때만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며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란 공정하고 동등한 교환, 거래, 합의이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타인들 또한 자신의 이해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③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인적 조망을 가진다. 모든 개인은 추구해야 할 자신

의 이해를 가지며 이러한 것들은 갈등한다.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관점을 가진다.

[인습 수준]

3단계: 대인 동조 혹은 ‘착한 아이’ 지향(interpersonal concordance or ‘good-boy’ orientation)

① 옳은 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중요하며, 이것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신뢰·존경·감시와 같은 상호관계의 준수를 의미한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자신이나 타인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 타인에 대한 배려, 처지를 바꿔 생각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믿음, 관계화된 선행을 지지하는 규칙과 권위를 지키려는 욕구 등이다.

③ 사회적 조망 수준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개인조망 수준으로 개인적 이해보다 우선하는 감정·합의·기대를 의식한다. 구체적인 황금률을 통해 관점들을 관련짓고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아보나, 아직 일반화된 체제의 조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단계: 사회유지 지향(society maintaining orientation)

① 옳은 것은 자신이 합의한 실제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회적 의무와 갈등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올바르다는 것은 사회와 집단, 제도에 기여하는 것이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제도를 총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다. 또한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해하려는 양심의 명령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③ 이 단계에서는 개인간의 합의와 동기로부터 사회적 관점을 분리시킨다. 규칙이나 기대를 규정하는 체제의 관점을 수용하고 체제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거해서 개인적 관계를 고려한다.

[인습 이후 수준]

5단계: 사회계약 지향(social contract orientation)

① 옳은 것이란,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가지며, 대부분의 가치와 규칙은 집단에 따라 상대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규칙은 공정함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유지된다. 그러나 생명·자유와 같은 절대적 가치와 권리들은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어느 사회에서나 지켜져야 한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계약 정신에 따르는 의무감 때문이다. 가족, 친구, 신의, 책무 등에 대해 자유로운 계약의 책무성을 인식한다. 법과 의무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체의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계산,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초해 있다.

③ 사회에 선행하는(prior-society) 조망을 가진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회유대와 계약에 선행하는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는 합리적인 조망을 가진다. 합의, 계약, 객관적 공정성, 정당한 과정이라는 형식적인 기제에 의해 조망을 통합한다. 도덕적, 법률적 관점을 고려하되, 그것들은 때로 갈등하며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다.

6단계: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universal ethical principle orientation)

① 옳은 것은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원리를 따른 것이다. 특정한 법과 사회적 합의는 이 윤리적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다. 법이 이 원리와 충돌할 때는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원리는 정의의 보편적 원리, 즉 인간권리의 평등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②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보편적 도덕원리의 타당성을 믿기 때문이다.

③ 이 단계는 도덕적 관점으로부터 사회적 협약이 도출되는 단계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도덕성의 본질을 깨달은 합리적 개인의 조망을 가진다.

2. 도덕성 발달과 교육

도덕성 발달에 관한 콜버그의 이론이 제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피험자의 도덕추론 단계를 상승시키는가에 관한 것으로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나 역할극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콜버그의 단계순차성을 검증하기 위한 Turiel(1969)의 연구는 아동 자신의 사고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 자신의 판단에 어떤 불확실함을 일으키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만 높은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Turiel은 개인의 도덕적 사고의 성장은 그의 현수준보다 적절히 높은 단계에 노출될 때 '구조적 통합'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인지적 갈등'이 현재의 인지구조를 재구조화하여 사고양식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Blatt와 Kohlberg(1975)는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을 정교화시켰다. 즉 Blatt와 Kohlberg는 튜리엘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다음의 사실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도덕교육 모형을 세웠다. 튜리엘의 연구가 보여준 것은 자신보다 한 단계 낮거나 두 단계가 높은 도덕추론 수준에 노출된 아동보다는 한 단계 위의 사고수준에 노출된 아동의 도덕추론 수준이 상승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신의 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 추론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으므로 거부하고 두 단계 높은 사고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단계의 추론은 아동에게서 인지적 갈등을 일으킬 때만이 동화된다.

그래서 Blatt와 Kohlberg(1975)는 또래집단으로 구성된 학급상황에서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토론이 도덕적 사고 수준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12주간 토론을 한 실험집단의 38%의 학생이 한 단계 상승이동하였으며 1년 후에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사고수준을 보였다.

Walsh(1980)도 콜버그의 관점에 따라 지속적인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이 현재 속해 있는 단계보다 상위단계의 상황과 자주 접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단계에 속한 아동을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라면 도덕적 행동의 처벌적 측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한 단계 위로의 상승을 위한 갈등상황과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은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1단계)에서 '저 아이가 그렇게 하니 나는 그렇게 해야지' (2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둘 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타인의 관점까지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추론단계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첫째, 비평형화이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당면한 도덕적 문제를 기존의 인지구조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평형상태가 되며, 이 비평형 상태는 다시 인지구조 자체의 변화를 유발시켜서 새로운 경험들이 이 구조속에 동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조절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인지구조의 출현이 곧 발달징표가 된다. 따라서 도덕 발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지구조의 비평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문용린, 1986).

이때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을 아동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상황으로, 즉 아동에게 문제해결의 동기를 불러낼 수 있는 문제상황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콜버그의 가설적 딜레마 상황(하인츠 이야기, 의사와 환자 이야기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실생활 딜레마(real life dilemma)를 이용하여 도덕판단 단계를 측정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둘째,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많은 직·간접 경험을 하는 일이다. 빼아제는 아동들의 또래간 상호관계나 타협이 도덕성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콜버그는 동료간 상호관계를 보다 넓게 해석해서 역할채택의 기회가 도덕성 발달에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본다. 즉 또래집단이 도덕발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런 역할채택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부모, 교사와의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채택(role-taking)의 기회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도덕규범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훈육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상호반응성(reciprocity)이 무시되어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추론유도형(induction)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의 민주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죄수와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사고의 상승에 관해서 연구한 콜버그는 이들의 도덕적 사고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해도 출옥 후의 환경으로 인해 제자리에 복귀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덕교육이 단순히 딜레마 토론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교도소에서의 죄수들 생활 그 자체가 정의스런 사회(Just Community)에 합당하게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서처럼 자녀들의 도덕적 추론의 수준을 제대로 상승시키려면 가정 자체가 정의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됨은 물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속에서 문제상황을 해결상황으로 바꾸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정에서의 도덕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성경 이야기의 재구성을 통한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위한 연구,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창작 동화집을 펴내는 연구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에게 선하고 착한 것을 들려주는 일방적인 교육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토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Ⅲ.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도덕문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여러 관점을

이해하는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도덕훈련 프로그램이며, 가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 대 상

본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재별 주제별	읽을 거리	짧은 이야기	영 화	활 동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고향 ◇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에서 ◇ 유산상속이 빚은 한국적 비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가 전부인가요? ◇ 수영대회 ◇ 교회에 나가면 안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의 역류 ◇ 태양의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 편지를 씁시다. (작업) ◇ 딥스-자아를 찾은 아이 (책) ◇ 가장 슬프고 아름답고 무서운 이야기 (책) ◇ 표정짓기 (게임)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수 빈 선생님 ◇ 컴퓨터 게임에 밀린 골목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 난 아니예요. ◇ 성역할 ◇ 우정 ◇ 내돈이잖아요!? ◇ 이런 것을 보면 안 돼. ◇ 도색잡지 ◇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병화 ◇ 죽은 시인의 사회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티첼리 (게임) ◇ 우리 학교는 너무 돈만 밝혀 (시 읽고 쓰기) ◇ 청소 시간 (희곡)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무 살의 자가용 소유 ◇ 꾸짖는 어른 ◇ 맹목성 범죄 ◇ 후손이 우리 세대에 보내는 편지 ◇ 환경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의식과 동료애 ◇ 10대 임신과 생명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 윌리 ◇ 파리대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나라 이야기 (시) ◇ 탈무드 ◇ 저마다 이야기를

3. 구 성

(1) 소재별 구성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들은 도덕적·사회적 문제 상황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제공하되, 딜레마에 초점을 두고 토론질문거리를 제시하였다. 딜레마는 다음의 다섯가지 필수요소로 구성된다.

- ① 딜레마 상황은 자녀들의 삶이나 당대 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② 딜레마에는 딜레마가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인물이나 주요집단이 있어야 한다.
- ③ 딜레마 상황은 중심인물의 선택을 포함해야 한다. 행동선택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승인된 '옳은 답'을 표상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 ④ 도덕적 딜레마는 핵심되는 도덕적 쟁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⑤ 각각의 딜레마는 등장인물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이 질문은 딜레마 내의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시키게 해준다.

딜레마 이야기가 제작되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질문은 주제, 결과, 역할관련 질문의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 ① 주제관련 질문은 딜레마 이야기에 나타난 도덕적 주제를 묻거나 확인하는 질문이다.
- ② 결과관련 질문은 토론이 거의 끝날 무렵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하는 질문이다.
- ③ 역할관련 질문은 토론의 전개를 단순히 딜레마의 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즉, 역할채택을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한 질문이다.

소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는 다음 표에 잘 나타나고 있다.

총 20주의 프로그램으로서 각 주마다 두 번 가족이 모여서 소재를 읽거나 보고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각 주에 두 편씩 총 40개의 소재가 제공되어 있다. 표에서 보이는 '읽을거리'란 신문·잡지 등에 나오는 감동적이거나 생각해 볼 만한 기사를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짧은 이야기'는 전부가 제작진이 만든 것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상적 상황을 딜레마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영화'는 가족이 함께 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선정하여, 그런 소재들이 어떻게 가정의 도덕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정된 난이다. '기타 활동'의 난은 게임, 희곡, 시, 책을 소개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가족이 상호작용하고, 도덕적 문제를 보다 흥미진진하게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주제별 구성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 주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로 나뉘어져 있다. 가정생활을 주제로 다룬 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 모두가 새로이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가정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는 총 6주 동안 이루어진다.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부분인 “내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자녀들이 스쳐지나가는 여러가지 학교의 사태들을 도덕적 사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갖는 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생활을 주제로 한 부분은 가정과 학교는 모두 사회의 한 부분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가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구경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 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여러가지 사회 도덕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부분이다.

4. 토론시 주의할 점

이 프로그램은 Galbraith와 Jones의 모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제시하고 나서, ① 딜레마를 확인하는 질문 → ②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 진술 → ③ 추리전개 → ④ 각자 입장 정립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토론과정에서 자녀들은 ① 진정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② 도덕적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동안 진정한 사회적·도덕적 갈등을 경험하기 ③ 자녀의 현재 사고수준을 문제상황에 적용하기 ④ 이후의 상위 사고 수준에 접하기 ⑤ 옳거나 틀린 대답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이 다양한 도덕적 쟁점에 대해 사고할 때 생기는 비밀관성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문용린, 1988).

토론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사고 판단 과정을 발달시키는 조장자이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도덕적 갈등에 직면하도록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도덕적 갈등과 그 해결책에 관한 대안을 숙고하도록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현행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해결의 과정을 제안하도록 하여 한 단계 위의 수준으로 도덕적 판단 단계를 높이도록 한다. 이런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선행조건은 가족 모두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성공적인 가족

모임에 되려면 이런 조건은 물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분위기 조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권위적 혹은 전제적 경향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의 관계 형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易地思之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온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와 노력에 달려있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족간의 존중과 사랑은 물론 도덕적인 삶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된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라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별로 다양한 소재와 활동이 제공된다.

제1부 내가 사랑하는 가족

- 1주 첫째날 - 수영대회(짧은 이야기)
- 둘째날 - 판사가 전부인가요?(짧은 이야기)
- 2주 첫째날 - 교회에 나가면 안되나요?(짧은 이야기)
- 둘째날 -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에서(읽을거리)
- 3주 첫째날 - 유산상속이 빛은 한국적 비극(읽을거리)
- 둘째날 - 어머니의 고향(읽을거리)
- 4주 첫째날 - 분노의 역류(영화)
- 둘째날 - 딤스 -자아를 찾은 아이 - (활동-책읽기)
- 5주 첫째날 - 태양의 제국(영화)
- 둘째날 - 가장 슬프고 아름답고 무서운 이야기(책읽기)
- 6주 첫째날 - 표정짓기(활동-게임)
- 둘째날 - 우리도 편지를 씁시다.(활동-작업)

제2부 내가 생활하는 학교에서

- 7주 첫째날 - 난 아니예요(짧은 이야기)
- 둘째날 - 친구(짧은 이야기)
- 8주 첫째날 - 성역할(짧은 이야기)
- 둘째날 - 우정(짧은 이야기)
- 9주 첫째날 - 내 돈이잖아요!?(짧은 이야기)

- 둘째날 - 이런 것을 보면 안돼(짧은 이야기)
- 10주 첫째날 - 도색잡지(짧은 이야기)
- 둘째날 - 컴퓨터 게임에 밀린 골목길 문화(읽을 거리)
- 11주 첫째날 -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짧은 이야기)
- 둘째날 - 명사수 빈 선생님(읽을거리)
- 12주 첫째날 - 죽은 시인의 사회(영화)
- 둘째날 - 로빙화(영화)
- 13주 첫째날 - 우리 학교는 너무 돈만 밝혀(활동 -시 읽고 쓰기)
- 둘째날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영화)
- 14주 첫째날 - 청소시간(희곡)
- 둘째날 - 보티첼리(게임)

제3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 15주 첫째날 - 직업의식과 동료애(짧은 이야기)
- 둘째날 - 10대임신과 생명의식(짧은 이야기)
- 16주 첫째날 - 고래나라 이야기(활동-시)
- 둘째날 - 꾸짖는 어른(읽을거리)
- 17주 첫째날 - 스무살의 자가용 소유(읽을거리)
- 둘째날 - 프리윌리(영화)
- 18주 첫째날 - 맹목성 범죄(읽을거리)
- 둘째날 - 환경이야기(읽을거리)
- 19주 첫째날 - 파리대왕(영화)
- 둘째날 - 후손이 우리 세대에 보내는 편지(활동)
- 20주 첫째날 - 탈무드
- 둘째날 - 저마다 이야기를

V. 개발된 프로그램의 예시

다음은 총 40편 중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다. 각 편의 구성 형식은 ① 소개글 ② 읽기자료 ③ 토론거리로 통일되어 있다.

제1주 둘째날
(짧은 이야기)

관 사 가 전 부 인 가 요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진리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때때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지로 나타나 도리어 자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뜻에 따라 어쩔수 없이 맞춰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물론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애정 표시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어김없이 불어닥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 문제에 따른 갈등! 꿈과 낭만의 청소년기를 공부와 시험으로 얼룩지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해해 주십니까? '내 아들 내딸인데... 사랑하니까...' 하는 생각에 자녀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게 하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부모와 자녀의 입장 모두에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함께
읽을 거리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호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모범생이다. 정호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호가 법대에 들어가서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바라셨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정호의 부모님은 정호의 공부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 대학 입시가 1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정호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정호는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고, 책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정작 그 자신은 국문과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하여 작가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정호가 당연히 법대를 지망하여 법관이 되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의 한(恨)을 풀어줄거라고 생각하였기에 정호에게 법대가 아닌 다른 학과 그것도 한가롭게 글을 쓰는 국문과 진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도 정호의 아버지는 책값이라면서 없는 돈을 쪼개어서 20,000을 주고 나가셨다. 그러나 이 돈을 받는 정호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정호는 자신이 법학에 별다른 흥미가

없다는 것과 자신이 설사 법대에 들어가도 법관의 길을 위해서 몇 년간을 시험과 싸움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두려울 따름이다. 더우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꺼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내일이 대학 입시 원서를 내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정호는 법학과와 국문과를 지원한 2개의 대입 원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확신과 기대와는 달리 정호는 내일 어디에 원서를 내야 할지 망막하기만 하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식인 나를 법관으로 키우시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수는 없어. 아니야 그렇다고 적성에 맞지도 않은 법학 공부를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어?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저런
얘기 거리

1. 만약 당신이 정호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부모님의 뜻대로 법학과를 지원하겠다.
 - ② 나의 적성에 맞는 국문과를 지원하겠다.
 - ③ 잘 모르겠다.
2. 1번의 보기중 ①을 선택한 경우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당신이 ① 혹은 ②을 선택할 때 다음의 질문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십시오.
 - ①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는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 ② 인생은 한번 뿐이다. 나의 길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
 - ③ 부모님의 노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④ 사회에서 남들이 더 잘 알아주는 직업을 위한 학과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가?
 - ⑤ 내가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⑥ 인생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 ⑦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일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 ⑧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 우리 집안에서 발생할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⑨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기 이전에 자유 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이다.

⑩ 내가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훨씬 크지 않을까?

4. 위에 제시된 이유외에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5. 만약 당신이 정호의 진학을 지도할 담임 선생님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Ⅵ. 결론: 요약 및 제언

1. 요약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타락 현상은 심각하다. 우리의 주변에서 보이는 젊은이들의 비행, 폭력, 퇴행, 성적 문란, 좌절, 자포자기 등은 일차적으로 도덕 규범의 혼란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도덕 규범이 확립되지 못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가정 속에 있다.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도덕적 삶을 체험하는 곳이며, 가정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가정은 도덕적 규제력과 훈련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의 도덕화를 위한 중요한 지주 중의 하나인 가정에서 도덕 교육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부모가 활용할 가정용 도덕 교육 지침서를 제작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규칙과 덕목을 가르치는 것을 도덕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정직, 극기, 우애, 존경 등의 덕목을 가르치고 이를 자녀가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덕목을 직접적으로 전수받는 것보다, 어린이 자신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도덕발달 단계에 적용한 Kohlberg에 의하면, 도덕교육이란 도덕문제에 대한 각 개인의 추론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도덕적 규범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갈등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동화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불균형이 평형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금기와 처벌, 그리고 도덕적 덕목의

일방적 주입은 아동의 도덕성을 거의 발달시키지 못한다. 아동은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할 도덕적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발달시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관점채택 능력(perspective taking ability)' 과 특정 문제해결 방식을 구체적 상황에서 일반적 상황으로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 도덕 발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훈련의 한 방법으로서, 인지구조의 비평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이때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을 아동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상황으로 느끼게 한다. 둘째,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많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할채택의 기회가 도덕성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도덕규범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추론유도형(induction)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의 민주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됨은 물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속에서 문제상황을 해결상황으로 바꾸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가정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토론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20주 동안 사용할 분량으로, 매주에 두 번 가족이 모여서 소재를 읽거나 보고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소재는 ① 신문·잡지 등에 나오는 감동적이거나 생각해 볼 만한 기사 ②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상적 상황을 텔레마 형식으로 기술한 것 ③ 영화, 게임, 희곡, 시, 책을 이용한 여러가지 활동이다.

주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로 나뉘어져 있다. ① 가정생활을 주제로 다룬 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 모두가 새로이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부분은 자녀들이 스쳐 지나가는 여러가지 학교의 사태들을 도덕적 사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사회생활을 주제로 한 부분은 가정과 학교는 모두 사회의 한 부분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가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제 언

우리사회의 도덕규범 확립을 위해 가정에서 도덕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으로는 활성화가 보장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현재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인지학습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자녀들의 도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 입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식의 교육풍토 때문에 자녀들의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도덕교육이 절실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매스컴에 기대하는 역할이 크다.

둘째,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사회단체에서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몇 주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도덕교육이 단기간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교육이 아닌 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단위 가정 이상의 조직적 활동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시대적 감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있을 것이다. 가상적인 상황이 아닌 실생활 경험에 근거한 딜레마를 소재로 사용한 점이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므로, 그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정 작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사용경험에 근거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보다 쉽고, 다양한 체제로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목표는 프로그램 자료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후속연구에는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용린(1986), 인지 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제1권 1호, 서울: 서울대 교육학과.
- 문용린(1988), *도덕과 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Blatt, M., and Kohlberg, L.(1975), Effects of Classroom Moral Discussion upon Children's Moral Judge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4, 129-161.
- Kohlberg, L.(1967),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and the Public schools: A Developmental view, In T. Sizer, ed.,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Kohlberg, L.(1976),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eimer, J.(1977), A Study in the Moral Development of Kibbutz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Turiel, E.(1969), Development Processes in the Child's Moral Thinking, In P. Mussen, J. Langer, and M. Covington, eds., *New Direction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bstract>

Development of Moral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Use

Moon, Yong Lin

(Department of Education)

Since long our society has been suffering from moral problems and crises. These are due to the loss of the moral control system which most Korean family systems had in the past. So,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solving moral problems. However, there has been no moral education program which aimed to improve children's moral thinking and judgement. It is wh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velop Moral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Use (MEPF).

The MEPF is based on the Kohlbergian frame of theories in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According to Kohlberg, moral development is facilitated not by indoctrination, but by discussion and real socio-moral experiences. The MEPF is to provide such discussion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

The main features of MEPF are as follows:

First, the MEPF is devised for mothers and fathers with children from ten years old and up.

Second, the MEPF is composed of moral stories and issues frequently occurring at home, school, and society settings. The materials of the MEPF include reading materials, dilemmas stories, video tapes and game modules.

Third, the MEPF can be used for twenty weeks, two sessions a week.

Several suggestions are necessary for the better use of the MEPF.

First of all, parents must recognize the necessity of moral education at home.

Second, parents using the MEPF should be persevering in making discussing climate at home.

Third, parents should be able to devise and accustomed to moral discussion materials by themselves.